

대원사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2백권 돌파

문화사랑 운동 '책으로 앞장'

도서출판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가 오는 4월 2백권을 돌파한다.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는 불교문화, 민속, 고미술, 음식일반, 건강식품, 즐거운 생활, 건강생활, 한국의 자연, 미술일반 등 9개 분야에 걸쳐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는 대표적인 문고 시리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찾기가 어렵던 시절인 지난 89년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는 불교문화에 지닌 의미와 우리생활과의

연관성을 사진과 함께 쉽고도 명확하게 설명해내 일반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확실한 색깔을 보여 주는데 일익을 했다. 지금까지 발간된 불교문화 관련 책만해도 <불상>, <사원건축>, <젓절타>

장승과 석수 등 우리가 소홀하게 보아 넘어져왔던 전통문화를 담았다. 한옥의 조형, 문방사우 등 우리의 옛미술포 다도, 분재, 집꾸미기 등 다양한 취미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5백권 목표... "불교문화알리기 큰몫" 작년 출판계 첫 세종문화상 수상

<요사채>, <불교목공예>, <영산재>, <산사의 하루>, <고승진영> 등 40여권. 불교의 분야에서도 우리문화전반에 걸쳐있는 불교의 숨결을 사진과 글을 통해 소개해 왔다. 민속부문에서는 짚문화, 소반, 복식, 솟대, 전통상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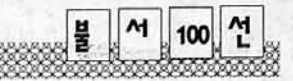
특히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는 기존의 '읽는 책' 개념에서 '보는 책'의 개념을 도입, 원색의 사진과 함께 글도 쉽고 간결하다. 이처럼 누구나

이은자 기자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는 쉬운 설명과 원색의 사진으로 일반인에게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명사추천



불교의 심층심리

이 책은 일본 고마자와역대 후도타·히사노리가 집필한 것으로 동국대학교 교수인 정병조선생이 우리말로 옮겼고 도서출판 현암사에서 출판했다.

<불교의 심층심리>는 불교의 유식사상(唯識思想)을 제1장에서부터 제8장까지 풀어놓은 유식불교의 역사서적이다. 우리들은 얼핏 불교의 경전을 난해한 한자(漢字)의 나열에 그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중국을 거쳐 들어와 중국에서 번역된 원전(原典)인 한문을 그대로 사용해 한학에 능통한 사람이나 그 이해가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유구한 세월을 그렇게 전해온 경전은 그 슬한 세월 속에서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지 못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불자들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별히 불교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고서는 경전이 지닌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 왔으니 진정한 법이론이 많이 왜곡되어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역불사상



송 운 하 (불교문인협회 부회장)

개론서이지만 흥미롭게 서술 '유식사상 어렵다' 선입견 불식

이 나라를 지배하던 조선조를 겪으면서 한국의 불교는 제자리를 찾지 못해왔다.

근세에 들어와 경전을 국역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부터 난해하다고만 생각했던 불교 경전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드라마틱한 진리의 가르침인가를 불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은 함으로 반갑고 다행한 일이다.

<불교의 심층심리>를 들여다보면 유식사상의 심층의식을 논리화 하였고 흥미로운 서술로 불교가 난해하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있다. 비록 개론서이지만 특색으로 하여금 유식세계에 한 걸음 가까이 가게 해주고 있어 유식이 어렵다고 생각해 업무를 못내는 사람들에게 유식의 문턱을 무난히 넘게 해주는 책이라 생각되어 감히 추천한다.

<초반심자경문> 가운데 '행구우묵'이라는 어구가 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눈먼 거북이가 지쳐 떠 있지를 못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을 때 마침내 용이 구멍이 뚫려있는 나무판자가 떠가는 것을 만나 그 구멍에 목을 들이밀어 살아 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부처님과 나의 인연이 이토록이나 만나기 어려운 것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불서를 만나는 것도 이와같다.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면 깨달음의 세계에 한층 가까이 갈 수 있듯이 불자여러분들도 좋은 불서를 가까이 해서 불법의 정수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 이것은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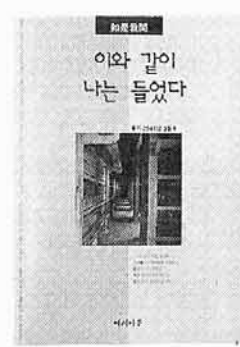
요즈음 각 출판사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각종 경전이나 불교이론서 및 종교사상서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쉽고 명쾌하게 풀어 발간하고 있는 일도 반갑게 여겨진다.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월간 불서정보지 탄생

출판·책방 '여시아문'

불교계 최초의 불교도서 정보지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가 3월호부터 새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출판사 여시아문과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만든 '...나는 들었다'는 기존의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점점 늘어나는 불교도서출판 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췄다.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불서읽기에 대한 친절한 길잡이 역할은 물론 미니 교양잡지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 출판계의 화제가 되고있다.

이번호에는 좋은 책 선정위원회가 추천하는 '이런책을 읽자', 2백지로 책읽기, 책 출판의 숨어 있는 재미있는 뒷 얘기를 추적하는 책속에 숨은 이야기-현암사의 '불교대전',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이 사람이 책-고은 그리고 내가 가는 금강경 등 책관련 읽을 거리가 풍성하다. 또한 지난해 신문 방송을



철은 전생신도들을 어떻게 불자인가에 대한 독자광장은 밝다. 특집에서는 음식스레기를 즐기 위한 가장 바루공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안내하기 위한 참고도서도 안내하고 있다. '신행을 위한 짧은 글'은 불자들의 신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식교과이다. <비대중>(02)737-0695

유마경 장순용 지음

한글세대에 맞도록 쉽게 번역한 시공 불교 경전시리즈 제1권 <유마경>이 나왔다. 재가신자인 유마경사가 부처님을 대신해 설한 법문을 모은 <유마경>은 이미 그 문학적 우수성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담나라 원장의 <설무구칭경(說無垢稱經)>을 토대로 장순용씨가 번역했다.

각 품의 이름을 '제1품 부처님의 세계' '제2품 유마경의 방편' 등과 같이 한글로 풀어써서 품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품을 내용에 따라 절로 나누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대의를 달아 읽는 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했다. 또한 각 품의 끝부분에 해설을 실어 어려운 불교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좀 더 재미있고 깊이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공사 1만2천원>

반야불교 신행론 해달 지음

<반야불교 신행론>은 반야사상에 입각한 신행 정립을 위한 책. 반야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설하고 있는 <대품반야경>을 중심으로 신행의 요체를 신앙론, 반야론, 방편론으로 구성했다. 제1권 신앙론에서는 반야비라미 신앙의 형태와 공덕을 제2권 반야론에서는 반야비라미의 실천과 공사상, 그리고 제3권 방편론에서는 보살의 두 날개이자 반야비라미의 절대면과 상대면인 지혜와 방편 등에 대해 설하고 있다. 불교계의 많은 종단이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반야사상에 입각한 제대로된 신행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반야불교 신행론>은 불자들의 바른 신행길잡이가 될 것이다. <불광출판부 1만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썩기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3	힘든 세상 지나 담지	효 립	가 서 원
4	그까지 살쯤 있으면 어때	화 립	여시아문
5	49재 공덕과 의미	권 집 주	이 바 지
6	삼소골 소식	명 정	극락선원
7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8	도솔천에서 만났습니다	장 순 용	세계사
9	네 발밑부터 살피라	정 념	장 승
10	참선교육	현 답	수선출판사

구입문의: (02)737-0695

불지사 사보·단행본등 8백60종 편집대행

창립 10돌 사업성보다 불교문화 보급 '우선'

출판대행이라는 불교출판 전문영역을 처음 선보이며 출판문화를 이끌어온 (주) 불지사(佛地社, 대표이사 김형규)가 21일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불지사는 지난 87년 동국대 목정배 서운길 교수와 전북대 강건기교수 진흥원 권오현국장 등이 뜻을 모아 6명의 직원으로 출발했다.

당시 불교서적 전문편집대행이라는 일은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불지사는 자본이나 인력이 열악한 출판계의 상황에서 두 가지 요인을 절묘하게 결합시켜 불교출판문화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 <선립교경총서> 시리즈 등 그동안 8백여권의 단행본과 논문집, 60여종의 사보·회보류를 편집 발행해 왔다.

지난 92년 폐간위기에 처한 어린이 불교잡지 월간 '굴렁쇠어린이'('동쪽나라' 정신)를 인수하면서 부터 시작한 어린이 포교문화사업도 불지사의 관목할만한 업적으로 꼽힌다. 투자와 지원뿐이라는 어린이 관련 사업은 잡지발행 뿐만 아니라 어린이전국단 '동쪽나라' 창설, 연극학교, 국토순례, 아동문학상제정 시상 등

◇김형규 편집장

활발하게 전개됐다.

또 불지사가 10년동안 배출한 150여명의 불교인력도 큰 성과로 꼽힌다. 이들 배출 인력은 언론계 출판사 연구원 문화원 기획실 전업작가 등 불교 문화계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김형규편집장(46)은 "불지사는 푸른 10대 담겨 앞으로 출간, 어린이문화를 위해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살 빼야지, 살 빼야지.”

2,500여년간 승가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양생의 지혜. 군더더기 없는 삶, 군살 없는 몸매 유지의 비결 - 불교 다이어트.

저울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 아니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다. 모든 것을 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따라 생활할 뿐, 특별한 방법으로 몸을 돌보지 않는다. 승가의 생활 그 자체가 건강의 비결인 까닭이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몇십년 동안 1~2kg 정도의 차이로 몸무게를 유지하며 생활한다. 몸은 항상 변화한다. 그것이 늙음이고, 병듦이고, 죽음이다.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 바탕 위에서 불가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이어트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책 ① 불교 다이어트 **그까지 살 좀 있으면 어때**

제1장 승가의 생활
제2장 음식물로 다이어트를
제3장 쾌변으로 다이어트를
제4장 쾌변으로 다이어트를
제5장 호흡으로 다이어트를
제6장 식욕을 끊어 다이어트를
제7장 몸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제8장 요가로 다이어트를
제9장 마음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국판 224쪽/ 학림 지음
여시아문 / 값 5,000원

여시아문은 '몸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037(팩스)